

경제정책 기관 기록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Online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Economic Policy Institutions

이 은 진 (Eunjin Lee)**

이 지 수 (Jisu Lee)***

초 록

본 연구는 경제정책 기관 기록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25개 회원국의 중앙은행·재무부·금융감독기관 70개 기관의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기록관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이 중 온라인 카탈로그 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 안내, 소장기록 구성 및 이용, 기록 탐색 지원, 아웃리치의 4개 영역을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관 소개·연락처와 같은 기본적인 안내나 키워드·고급 검색 기능은 대다수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었던 반면, 소장기록의 생산 맥락 정보와 아웃리치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영역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 내 기록 소재 및 이용 가능 여부 안내, 소장기록 구성과 생산 맥락 정보 제공, 단계별 탐색 안내 체계 구축, 기록관 고유 콘텐츠 및 학술 활동 확대라는 향후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economic policy institutions currently provide online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with the aim of proposing measures to improve individual institutions' services. The study surveyed the websites of 70 institutions—central banks, ministries of finance, and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among the 25 member countries of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and selected 9 institutions operating online catalogues or digital archives for further analysis. This analysis covered four areas: archives information, description and use of holdings, research support, and outreach. The results showed that basic information such as institutional overviews and contact details, as well as functions such as keyword and advanced search, were provided by most institutions, whereas information on the provenance of holdings and outreach content were comparatively lacking, revealing notable disparities across the four areas. Based on these findings, four measures were proposed: providing guidance on the location and availability of records, offering information on the structure and origin of holdings, establishing a step-by-step research support system, and expanding archive-specific content and academic activities.

키워드: 경제 기록, 기록정보서비스, 온라인 카탈로그, 디지털 아카이브, 중앙은행
Economic Records, Information Services, Online Catalogue, Digital Archives, Central Bank

* 이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ejlee0202@sookmyung.ac.kr / ISNI 0000 0005 3089 4292)
(제1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slee23@sookmyung.ac.kr / ISNI 0000 0004 7145 0025)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6년 8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8월 28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3): 151-175,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3.151>

※ Copyright ©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록정보서비스란 넓은 의미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록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한국기록학회, 2008). 동 서비스는 업무 활동의 부산물인 ‘기록’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소장기록의 배경, 구성, 목록 등의 상세한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O'Donnell, 2000).

정부의 정책 영역은 다양하나 그중에서도 경제정책은 금융·재정·산업 전반에 걸쳐 개개인의 일상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정책 기관은 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공적 주체로서,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민간 금융기관의 보고서와 달리 정책 결정의 배경과 근거를 담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정책 파급력은 국경을 넘어 확대되므로(이종규, 2000), 해당 정책 기록에 대한 접근 수요 역시 국제적으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국내외 다양한 주체의 의사결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의 신뢰성과 적시성이 중요하다.

경제정책 기록은 정책이 다루어진 시기와 배경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연지현, 김성원, 2022). 성인의 경제 정보 문해력에 관한 각국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중의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독일·이탈리아 등 유럽의 조사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핵심 임무를 정확히 인지한

응답자가 30% 미만이었고(Bottone et al., 2021; Mellina & Schmidt, 2018), 미국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System)의 역할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Axios & Ipsos, 2022). 국내 역시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에서 평균 점수가 58.7점에 그쳐 성인의 경제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기획재정부, 2024). 이용자가 경제정책 기록 이용에 필요한 배경 지식의 격차로 인해 기록 접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제정책 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는 정책의 배경과 근거를 탐구하는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공중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성과 이용자 친화성을 함께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 기관의 웹사이트가 기록정보서비스 채널로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국회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김유승, 설문원, 2013; 방기영 외, 2015; 정미옥, 최상희, 2019). 경제 분야의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도입되기 이전 시점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비교 대상 기관 유형이 통일되지 않아 전반적인 기록정보서비스 체계를 조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협약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25개 회원국의 중앙은행, 재무부, 금융감독기관 중 온라인 카탈로그 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정책 기관 기록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기관별 웹사이트를 통해 어떠한 기록정보서비스 항목이 제공되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정책 기관의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정보서비스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표 1>과 같이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먼저, Pugh(1992), Abraham(1996), 이영숙(2007), 장혜란과 이명희(2008), Pitol(2019) 등 기록관(또는 기록관 웹사이트)이 제공해야 할 정보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5편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30개의 세부 분석 요소를 도출하였다. 동 분석 요소의 유기적인 해석을 위해 아키비스트의 지식 체계를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지식(User Interaction Knowledge), 컬렉션에 관한 지식(Collection Knowledge), 연구 수행 방법에 관한 지식(Research Knowledge)의 세 범주로 구조화한 ARK(Archival Reference Knowledge) 모델(Duff et al., 2013)을 적용하고, 여기에 잠재적 이용자를 향한 아웃리치 요소를 추가하여 기록관 안내, 소장기록 구성 및 이용, 기록 탐색 지원, 아웃리치의 4개 영역으로 항목을 범주화하였다.

웹사이트는 기록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

대면 공간이므로 아키비스트가 이용자 응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역할은 웹사이트에 갖추어야 할 콘텐츠와 기능의 형태로 대응된다. 기존의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평가지표 연구(방기영 외, 2015; 이운주, 2007; 장혜란, 이명희, 2008; 장희정, 2012)는 구조·디자인·콘텐츠·인터페이스 등 웹사이트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항목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달리 ARK는 아키비스트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영역별로 구조화한 모델로, 웹사이트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웹사이트가 수행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ARK는 실제 이용자와 아키비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도출되어 기록정보서비스의 현장 맥락을 충실히 반영하며, Dorey(2018)에 의해 기록관 웹사이트 평가에 적용된 선례가 있다. 본 연구도 이를 참고하여 경제정책 기관의 기록관 웹사이트에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얼마나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ARK 모델을 채택하였다.

둘째, FSB 참여 25개국의 3종 기관(73개 기관) 웹사이트 중 접속 불가 3개를 제외한 70개를 조사하였다(<표 2>, [부록 1] 참조). FSB는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25개국의 중앙은행, 재무부, 금융감독기관과 국제기구 10개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내외 현황을 비교하기에 적합하다. 다만, 국제기구는 일반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접점보다 국가 간 정책 자문 성격이 강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0개 기관 중 온라인 카탈로그를 운영하는 독일 Deutsche Bundesbank, 멕시코 Banco de México, 영국 Bank of England, 프랑스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énergétique

〈표 1〉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분석 기준

분석 요소 ¹⁾	세부 분석 요소	형태	출처
기록관 안내	① 기관 및 기록관 소개	정보	Pugh(1992) = Pu, Abraham(1996) = A, 이영숙(2007) = L, 장혜란, 이명희(2008) = C, Pitol(2019) = Pi
	② 연락처 · 운영시간 · 위치	정보	Pu, A, L, C, Pi
	③ 서비스 규정 · 이용절차	정보	Pu, A, L, C, Pi
	④ 저작권 등 법적 정보 안내	정보	Pu, L
	⑤ 기록 접근제한 안내	정보	Pu, L
	⑥ 복사 · 복제 · 대출 안내	정보	Pu, L, C, Pi
	⑦ 참고서비스 안내	정보	Pu, L, C, Pi
	⑧ 자주 묻는 질문(FAQ)	정보	C
소장기록 구성 및 이용	① 소장기록의 범위와 내용	정보	Pu, A, L, C, Pi
	② 기록 생산자 정보	정보	Pu
	③ 기록 상세기술 정보	정보	Pu, Pi
	④ 온라인 원문 열람 · 다운로드 · 인쇄	기능	C
	⑤ 사본 제공 신청	기능	Pu, L, C, Pi
	⑥ 참고정보원 · 유관기관 링크	정보	Pu, A, L, C
	⑦ 게시내용 업데이트 정보	정보	A
기록 탐색 지원	① 웹사이트 이용 가이드	정보	Pu, L, C
	② 주제별 연구 가이드	정보	Pu, L, C
	③ 목록 탐색(Browse)	기능	C, Pi
	④ 키워드 검색	기능	A, C, Pi
	⑤ 고급 검색	기능	A, C, Pi
	⑥ 목록 반출, 선택정보 저장 · 내보내기	기능	Pi
	⑦ 챗봇 · AI 서비스	기능	신규 추가
아웃리치	① 실물 전시 소개	정보	L, C
	② 소장기록을 활용한 큐레이션 콘텐츠	정보	L
	③ 출판 · 편찬 · 구술기록	정보	A, L, C
	④ 뉴스레터	기능	A, C
	⑤ 이용자 의견 수렴 · 불만 처리	정보	L
	⑥ SNS · 홍보 · 이벤트 운영	정보	L, C
	⑦ 이용자 교육 · 견학 · 강좌 소개	정보	Pu, L, C
	⑧ 학술 연구회 · 세미나 · 워크숍 소개	정보	A, L, C

1) 이용자의 상호작용 지식(User Interaction Knowledge) ▶ 기록관 안내
 컬렉션에 관한 지식(Collection Knowledge) ▶ 소장기록 구성 및 이용
 연구 수행 방법에 관한 지식(Research Knowledge) ▶ 기록 탐색 지원

〈표 2〉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분석 대상 기관 수

기준	기관 수			
	은행	재무	감독	합계
FSB 참여국(25개국)의 3종 기관	25	25	23 ²⁾	73
▼	▼			
접속불가 제외	24	24	22	70
▼	▼			
웹사이트 내에서 기록관 운영이 확인되는 경우	12	1	0	13
▼	▼			
기록관 웹사이트(카탈로그 또는 아카이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8	1	0	9

et numérique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스페인 Banco de España, 일본 Bank of Japan, 프랑스 Banque de France, 한국은행, 호주 Reserve Bank of Australia 9개 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연혁을 조사하고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현황은 2026년 5월 30일부터 2026년 7월 15일까지 연구자가 각 기관의 기록관 웹사이트를 접속하여 조사하였다. 웹사이트는 해당 국가의 언어 설정으로 확인하되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브라우저 자체 번역 도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제공 여부는 제공, 부분제공, 미제공으로 구분하였으며([부록 2] 참조), 부분제공은 요소가 존재하되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형식적으로만 갖춰진 경우를 의미한다. 각 기관의 기록관리 연혁은 스페인 BdE, 일본 BOJ, 프랑스 MEFSIEN 3개 기관의 경우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통해, 나머지 6개 기관은 기록관 참고서비스 담당 이메일로 문의하여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정한 4개 분석 영역별 문제점 및 우수사례를 종합하여 경제정책 기관의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와 경제 분야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공공 영역의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의 평가지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윤주(2007)는 구조와 디자인, 콘텐츠, 인터페이스, 커뮤니케이션, 검색의 5가지 평가 영역 및 51개 항목의 기록관 웹사이트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기록관이 웹사이트 개발·개선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다. 장혜란과 이명희(2008)는 지

2) 러시아와 싱가포르를 중앙은행이 감독기구를 겸임

방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기본 서비스, 확장 서비스 I · II, 상호작용 서비스의 4단계 이용자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각 기관이 여건에 따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였다. 장희정(2012)은 콘텐츠, 인터페이스, 검색의 3가지 평가영역 및 42개 항목의 국가 기록관 웹사이트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영국 · 미국 · 호주 · 캐나다 국가기록관 웹사이트와의 비교 · 평가를 토대로 국가기록원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방기영 외(2015)는 기록 및 정보 검색, 기록물활용 서비스, 확장 서비스의 3가지 평가영역 및 15개 항목으로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실제 이용자 평가를 통해 검색도구의 보완, 콘텐츠 링크의 안정성 개선, 이용자 피드백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앞선 평가지표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관 유형을 대상으로 한 현황 분석 연구가 이어졌다. 최상희(2016)는 구조, 디자인, 콘텐츠, 인터페이스의 네 영역을 설정하여 국내외의 7개 가톨릭 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강주연 외(2017)는 검색 및 열람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활용 촉진 서비스의 세 영역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웹 기반 연구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을 평가하였다. 임진영과 이해영(2020)은 온라인 접근성, 검색 및 온라인 열람, 아웃리치 서비스를 기준으로 국내외 6곳의 공영방송사 아카이브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성연과 이해은(2021)은 기관 및 기록관 정보, 기록물 이용, 이용자 서비스, 홍보 및 활용의 네 영역으로 분석 요소를 구성하고, 국내외 10곳의 NGO 아카이브 웹사이트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서채영

과 이해영(2024)은 정보 제공, 정보 검색, 이용자 지원,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네 영역으로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이를 국내 3곳의 라키비움 웹사이트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윤화와 이성숙(2025)은 검색 · 열람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의 세 영역으로 분석 요소를 구성하여 국내 17곳의 교육청 웹사이트를 분석하였다.

경제 기록물의 가치를 살펴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St-Amant et al.(2005)은 1990~2003년 중 34개의 중앙은행 연구 출판물을 기반으로 연구 활동의 양, 질, 정책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각 출판물의 국제결제은행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용 횟수를 기준으로 연구의 질과 정책적 관련성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중앙은행의 기록이 주요 정책 결정의 객관적 근거로써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영애(2003)와 조윤희(2009)는 각각 독일의 경제아카이브와 영국의 은행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기록물의 사회 · 경제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존을 넘어 대중에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준(2018)은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조사위원회의 기록물 관리 및 서비스 사례를 비교하여 수집, 보관, 서비스의 3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웹사이트를 통한 경제 정보의 서비스 현황 파악 및 이용자 접근 편의성 제고를 논의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미라(2005)는 국내외 경제 분야 웹사이트 40곳의 정보 품질과 서비스를 평가하였으며, 기관의 서비스 목표나 이용자층을 명시하고 일반인 등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Baker & Chin(2016)은 미국의 237개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금융·재정 문서의 전자적 이용가능성(E-Availability)과 접근성(E-Accessibility)을 조사하여 정보공개 수준을 파악하였다. 심지어(2023)은 한국은행 디지털 아카이브와 국내외 5개 주요 경제기관 웹사이트를 비교하였으며, 과거 출판물을 단순 스캔 형태가 아닌 데이터 세트(Dataset)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가 특정 분야 및 기관 유형에 맞춰 점차 세분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제 기록을 다룬 연구들은 해당 기록이 지닌 공공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기존 연구는 공공기관 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 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 분야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도입되기 이전 시점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비교 대상 기관 유형이 통일되지 않아 전반적인 기록정보서비스 체계를 조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FSB 회원국의 경제정책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2 경제정책 기관의 기록관리 연혁

9개 기관의 기록관리 연혁은 <표 3>과 같다. 스페인 BdE(1782년), 프랑스 BdF(1808년), 프랑스 MEFSIEN(1822년), 영국 BoE(1929년)는 모두 100년 이상 기록관리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은행과 일본 BOJ는 각각 창립 20주년과 10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사료 정리를 시작하였다.

일부 기관은 기록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두었으며, 일본 BOJ는 금융연구소 아카이브를, 프랑스 MEFSIEN은 SAEF(Service des archives économiques et financières)를 설치하였다. 영국 BoE는 2026년에 기록관과 도서관을 통합하여 ARK(Archive, Record and Knowledge)팀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국가 기록관리 체계와의 관계가 확인된 기관은 다음과 같다. 일본 BOJ는 2002년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료 관리 시설로 지정되었고, 2011년에는 공문서관리법에 따라 재지정되었다. 프랑스 BdF는 1981년 문화부 산하 기록관리 전담부서(SIAF, Service interministériel des archives de France)의 감독을 받는 체계 안에서 기록물을 직접 관리할 권한을 수임하였다. 한국은행은 2007년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호주 RBA는 1993년 기록물관리법(Archives Act 1983)의 적용을 받기 시작한 이후 2024년에는 호주 국립기록원(NAA,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과의 협약을 통해 기록물의 자체 소장 권한을 명확화하였다.

온라인 서비스 도입 현황을 보았을 때, 분석 대상 기관 중 독일 BBk가 2006년에 가장 먼저 온라인 카탈로그를 개관하였다. 영국 BoE는 2012년 온라인 카탈로그 개관 이후 2024년에 별도의 디지털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원문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이 밖에 프랑스 MEFSIEN(2015년), 일본 BOJ(2019년), 스페인 BdE 및 프랑스 BdF(2020년), 호주 RBA(2021년), 한국은행 및 멕시코 Banxico(2024년)는 2015년부터 2024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점차 원문 제공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표 3〉 분석 대상 기관의 기록관리 연혁

연번	국가	구분	기관명	설립연도	웹사이트 형태
기관의 기록관리 연혁					
1	독일	중앙은행	Deutsche Bundesbank(BBk)	1957	카탈로그
		1970년 기록보관소 설치 1992년 기록관리시스템 Faust 도입 2006년 온라인 카탈로그 개관 2026년 기록관리시스템 Eterna 도입 및 온라인 카탈로그 개편			
2	멕시코	중앙은행	Banco de México(Banxico)	1925	카탈로그
		2004년 기록관리 전담부서 신설 2005년 기록물관리 내부규칙 제정 2019년 기록물 평가를 위한 부서간 협의체(Interdisciplinary Group) 구성 2024년 온라인 카탈로그 개관			
3	스페인	중앙은행	Banco de España(BdE)	1782 / 1856*	아카이브
		1782년 12월~1783년 1월 창립총회에서 기록보관소 설치 결정 1979년 4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 규정 제정 1982년 창립 200주년 기념 열람실 개관 2010년 기록보관소 소장 도서 및 기록물 디지털화 시작 2020년 디지털 리포지토리 개관 (기록관 전용 OPAC은 아니나 주요 기록물의 원문 탑재)			
4	영국	중앙은행	Bank of England(BoE)	1694 / 1946*	카탈로그&아카이브
		1929년 기록보관소 설치, 1938년 아카이브 위원회 설치 1960년 기록물 목록화 및 수집을 담당하는 아카이브 전담부서 신설 1972년 최초의 기록물관리자 임용 2012년 온라인 카탈로그 개관 & 2024년 디지털 아카이브 웹사이트에서 원문서비스 시작 2026년 ARK(Archive, Record and Knowledge)팀 신설			
5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BOJ, Bank of Japan)	1882	아카이브
		1982년 금융연구소 설치(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발족) 1999년 금융연구소 아카이브 정식 발족 2002년 독립 행정법인 등이 보유한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료 관리 시설 지정 2011년 공문서관리법에 따라 공문서관 등으로 지정 2019년 원문 서비스 시작			
6	프랑스	중앙은행	Banque de France(BdF)	1800 / 1946*	아카이브
		1808년 기록물관리자 직책 신설 및 임명 1981년 프랑스 문화부 산하 기록관리 전담부서(SIAF)의 과학적·기술적 감독하에 기록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수립 1992년 역사기록물 활용 촉진을 위한 위원회(Mission historique) 설치 2020년 디지털 아카이브 개관			
7	프랑스	재무부	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énergétique et numérique(MEFSIEN)	1791 / 1989*	카탈로그
		1822년 재무부 건물 내 기록보관소 설치 1966년 프랑스 국립기록원이 경제재정부 내 자체적인 기록관리 전담부서 창설 요청 1971년 기록관리 조직(SAEF, Service des archives économiques et financières) 설치 2015년 온라인 카탈로그 개관, 2018년 및 2025년 온라인 카탈로그 시스템 개편			
8	한국	중앙은행	한국은행(BOK, Bank of Korea)	1950	아카이브
		1968년 사료조사위원회 설치(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발족) 1972년 사료 관리 시작 2007년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 2018년 사료관리 전담팀(사료반) 설치 2024년 디지털 아카이브 개관			
9	호주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RBA)	1960	아카이브
		1954년(호주연방은행 당시) 아카이브 전담부서 신설 및 최초의 기록물관리자 임용 1993년 기록물관리법(Archives Act 1983)에 따라 기록물 공개 의무 적용 2021년 디지털 아카이브 개관 2024년 호주 국립기록원(NAA)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록물 자체 소장 권한 명확화			

* 웹사이트 기관 소개에 전신 기관의 연혁을 함께 서술한 경우 최초 설립연도와 개편연도 모두 병기

3. 경제정책 기관의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현황 분석

3.1 기록관 안내

기록관 안내 요소는 웹사이트가 기록물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알권리 요구를 충족시키는지 측정하는 영역으로, 기관별 제공 현황은 <표 4>와 같다.

기관 및 기록관 소개(①)와 연락처·운영시간·위치(②)는 9개 기관 모두가 제공하고 있으나 소개 내용의 서술 범위와 상세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스페인 BdE, 프랑스 MEFSIEN, 일본 BOJ는 기록관 소개 시 기관의 기록관리 연혁을 함께 제시하고, 멕시코 Banxico는 연도별 기록관 업무 수행사례를 공유하여 기록관의 이해를 높이고 있었다. 나머지 기관은 업무와 연락처, 관련 법령(기록물법, 정보공개법)에 대한 개괄적인 언급에 그쳤다.

서비스 규정·이용절차(③)의 안내 형식은 기관마다 상이하였다. 멕시코 Banxico, 스페인 BdE, 일본 BOJ, 호주 RBA는 서비스 규정(열

람실 이용 또는 기록물 접근)을 독립된 문서로 제공하였다. 이는 시기나 담당자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5개의 기관은 웹페이지 내에서 기록관 소개 또는 FAQ를 통해 기본적인 안내만 제공하고 있었다.

저작권 등 법적 정보 안내(④)는 분석 대상 기관 9개 중 호주 RBA에서만 확인되었다. 공공기록물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수집자료 중 일부는 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어 원저작자 표기가 있어야 이용자가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호주 RBA는 아이템별로 저작권 정보를 표시한 유일한 사례로 확인되었다.

기록 접근제한 안내(⑤)의 경우, 근거 법령과 내부 규정의 명시 수준이 기관마다 상이하였다. 영국 BoE는 정보공개법을, 프랑스 BdF 및 MEFSIEN은 문화유산법을 근거로 각 정보의 비공개 기간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일본 BOJ는 「일본은행 금융연구소 아카이브가 보존하는 특정 역사 공문서 등의 이용 청구에 대한 이용 결정 등에 관한 심사 기준」을, 호주 RBA

<표 4> 기록관 안내 정보 제공 현황

분석 요소		BBk	Banxico	BdE	BoE	BOJ	BdF	MEF SIEN	BOK	RBA
기록관 안내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⑥	○	○	-	○	○	-	○	△	○
	⑦	△	△	△	△	○	△	○	△	△
	⑧	○	-	-	○	-	-	○	○	-

○ 제공, △ 부분제공, - 미제공

는 「Archives Access Policy」 문서를 제공하여 접근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반해 독일 BBk, 멕시코 Banxico, 스페인 BdE는 준수 법령은 명시하였으나 구체적인 해설은 제공하지 않았으며, 한국은행은 기록 접근제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다.

복사·복제·대출 안내(⑥)는 대다수 기관이 이용자의 개인 기기를 통한 자가 촬영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한국은행은 대출 금지만 안내하고 있었으며 복사·복제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참고서비스 안내(⑦)의 경우, 대다수의 기관이 이메일 주소 안내에 그치고 있었다. 다만 일본 BOJ는 「일본은행 금융연구소 아카이브 이용 등 규칙」에 참고서비스 제공을 명문화하여 문서 해독·번역, 감정 등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였고, 프랑스 MEFSIEN은 FAQ를 통해 참고서비스의 한계를 구체화하여 ‘담당자가 연구를 보조하되 연구 자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FAQ(⑧)는 분석 대상 기관 9개 중 독일 BBk, 영국 BoE, 프랑스 MEFSIEN, 한국은행이 제공하고 있었다. 자료의 온라인 공개 범위, 방문

연구 지원 여부, 복사·촬영 가능 여부 등 이용자의 실무적 질의에 대응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기관은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FAQ만 제공하고 기록관만의 FAQ는 부재하였다.

3.2 소장기록 구성 및 이용

소장기록 구성 및 이용 요소는 웹사이트가 기록 보존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영역으로, 기관별 제공 현황은 <표 5>와 같다.

소장기록의 범위와 내용(①)은 기관별로 제시 방식과 상세도에 차이가 있었다. 독일 BBk는 전체 인벤토리 목록을 파일로 제공하였으나 내용 기술이 포함되지 않아 카탈로그에서 별도의 검색이 필요했다. 스페인 BdE와 멕시코 Banxico는 각각 26쪽, 24쪽 분량의 문서로 фонд(fond) 단위의 기술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프랑스 BdF 역시 웹사이트에서 활동영역(фонд) 단위로 소장기록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호주 RBA는 ‘기록 보관 범위’ 메뉴에서 전체 시리즈(series)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각각의 항목

<표 5> 소장기록 구성 및 이용 정보 제공 현황

분석 요소		BBk	Banxico	BdE	BoE	BOJ	BdF	MEF SIEN	BOK	RBA
소장기록 구성 및 이용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⑥	-	-	○	○	-	-	-	-	-
	⑦	-	-	-	-	-	-	-	-	-

○ 제공, △ 부분제공, - 미제공

을 선택하며 해당 시리즈의 기술정보로 연결되었다. 일본 BOJ는 본점·지점·기증 자료로 구분된 방대한 분량의 엑셀 목록 파일을 제공하였으나 내용 기술은 포함하지 않아 부분적인 안내에 그쳤다. 이에 반해 영국 BoE와 프랑스 MEFSIEN, 한국은행은 소장기록의 전체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

기록 생산자 정보(②)는 영국 BoE와 일본 BOJ 2개 기관에서만 확인되었다. 영국 BoE는 조사 기관 중 유일하게 하위부서 및 BoE와 관련된 개인이나 조직의 약력을 제공하였으며, 일본 BOJ는 본점 부서·국·실의 조직도표를 제공하였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체계적인 생산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기록 상세기술 정보(③)는 식별번호, 제목, 생산자, 생산기간이 공통적으로 제공되었으나 내용 기술, 참조번호, 매체(종이, 사진 등) 등은 기록 단위에 따라 상이하였다. 특히 일본 BOJ와 한국은행은 기록 건별로 이용제한여부(심사 필요, 제한없음 등)를 명시하였고, 호주 RBA는 디지털 파일 크기와 DOI 식별자까지 포함하였다.

온라인 원문 열람·다운로드·인쇄(④)는 한국은행과 호주 RBA 2개 기관에서 전면 제공되었다. 독일 BBk, 멕시코 Banxico, 스페인 BdE, 영국 BoE, 일본 BOJ, 프랑스 BdF는 부분적으로만 원문을 제공하였다. 이 중 스페인 BdE는 주요 회의록을, 영국 BoE는 최신자료 중심으로, 프랑스 BdF는 위원회 회의록·지점 검사보고서·연차보고서 등 특정 기록물 유형에 한해 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프랑스 MEFSIEN은 원문 제공이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정보원·유관기관 링크(⑥)는 스페인 BdE와 영국 BoE 2개 기관에서만 기록관 관련 유관기관의 링크를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7개 기관은 기관 전반의 유관기관 링크만 제공하고 있었다. 사본 제공 신청(⑤)과 게시내용 업데이트 정보(⑦)는 조사 기관 9곳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3.3 기록 탐색 지원

기록 탐색 지원 요소는 웹사이트가 탐색 지원 공간으로써 제공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영역으로, 기관별 제공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기록 탐색 지원 기능 제공 현황

분석 요소		BBk	Banxico	BdE	BoE	BOJ	BdF	MEF SIEN	BOK	RBA
기록 탐색 지원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⑥	△	○	○	-	-	△	○	○	○
	⑦	-	-	-	-	-	-	-	-	-

○ 제공, △ 부분제공, - 미제공

웹사이트 이용 가이드(①)는 멕시코 Banxico, 스페인 BdE, 영국 BoE, 한국은행, 호주 RBA 5개 기관에서 기록 검색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이 중 호주 RBA는 이용 가이드와 함께 용어집(glossary)을 제공하였다. 독일 BBk와 프랑스 BdF·MEFSIEN은 검색창에 간략한 설명을 붙이는 방식에 그쳤으며, 일본 BOJ는 이용 가이드가 확인되지 않았다.

주제별 연구 가이드(②)는 프랑스 MEFSIEN, 한국은행, 호주 RBA 3개 기관에서만 확인되었다. 한국은행은 조선은행 조사월보 등 전신기관별 자료를 주제로 안내하고 있었으며, 프랑스 MEFSIEN과 호주 RBA는 경제사건, 기관별, 인물별, 담당부서별 등 다양한 주제별 연구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목록 탐색(③)은 독일 BBk, 스페인 BdE, 프랑스 BdF·MEFSIEN, 한국은행, 호주 RBA 6개 기관에서 확인되었다. 독일 BBk는 *(와일드카드)를 검색하여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페인 BdE는 리포지토리 내 'Archivo Histórico' 메뉴에서, 프랑스 BdF·MEFSIEN, 한국은행, 호주 RBA는 검색화면에서 검색어 입력 없이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은행은 '분류검색' 메뉴에서 주제·시기·인물·유형별 브라우징을 제공하였다. 일본 BOJ는 엑셀로 전체 목록을 제공하나 웹사이트 내 검색 기능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으며, 멕시코 Banxico와 영국 BoE는 전체 목록 브라우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키워드 검색(④)과 고급 검색(⑤)은 일본 BOJ를 제외한 8개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독일 BBk, 멕시코 Banxico, 한국은행, 호주 RBA는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어와 일치하는 단어를

하이라이팅 하였으며, 검색결과 내 키워드 재검색이 가능한 기관은 스페인 BdE, 한국은행, 호주 RBA 3개로 제한되었다. 프랑스 MEFSIEN은 고급 검색시 검색어의 굴절형, 유의어, 철자변형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였고, 이용자가 검색결과 정렬 기준을 4가지 방식(개별 문서 내 검색어 빈도, 질의어와 일치하는 단어 수, 전체 데이터베이스 내 검색어 빈도, 회귀어 우선) 중 선택할 수 있었다. 호주 RBA는 검색결과 필터에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여부를 포함하였다.

목록 반출·선택정보 저장(⑥)은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반출 기능의 범위를 중심으로 보면, 최소 수준은 독일 BBk의 메타데이터 건별 인쇄에 그쳤으며, 멕시코 Banxico와 스페인 BdE는 각각 텍스트 및 CSV 형식의 내보내기, 프랑스 MEFSIEN은 검색결과 전체 또는 건별 내보내기를 지원하였다. 한국은행은 개별 선택은 불가능하나 검색결과 목록을 엑셀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 BdF의 경우 장바구니 기능을 통해 검색결과 전체나 기록물 건별로 임시 저장할 수 있으나 내보내기 기능은 지원하지 않았다. 반면 호주 RBA는 건별 또는 복수 건 선택이 가능하며 메타데이터와 원문 파일을 함께 내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5건까지의 기록물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었으므로 가장 포괄적이고 고도화된 반출 기능을 제공하였다. 이에 반해 영국 BoE는 반출·저장 기능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챗봇·AI 서비스(⑦)는 조사 대상 9개 기관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3.4 아웃리치

아웃리치 요소는 웹사이트가 잠재적 이용자에게 소장기록의 존재를 알리고 이용 동기를 형성하도록 소통하는지를 측정하는 영역으로, 기관별 제공 현황은 <표 7>과 같다.

실물 전시 소개(①)는 스페인 BdE, 프랑스 MEFSIEN, 한국은행 3개 기관에서만 확인되었다. 다만 스페인 BdE와 프랑스 MEFSIEN은 과거 개최 이력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으며 상설 전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6개 기관 중에는 박물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기록관만의 실물 전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장기록을 활용한 큐레이션 콘텐츠(②)는 영국 BoE, 일본 BOJ, 프랑스 BdF·MEFSIEN, 한국은행 5개 기관에서 확인되었다. 각 기관은 서로 다른 형식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본 BOJ는 주제해설 콘텐츠, 프랑스 BdF와 MEFSIEN은 '이달의 문서', 한국은행은 '한은 이야기'라는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영국 BoE의 경우 카탈로그가 아닌 기관 홈페이지의 아카이브 소개 메뉴 내 '디지털화 문서' 섹션에서 큐레

이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주 RBA는 다수의 연구 가이드를 제공하므로 소장기록 활용 관점에서 부분제공으로 분류하였다.

출판·편찬·구술기록(③)은 스페인 BdE와 호주 RBA 2개 기관에서 확인되었다. 스페인 BdE는 아카이브 관련 출판물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었으며, 호주 RBA는 구술기록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외 7개 기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스레터(④)는 호주 RBA에서만 확인되었다. 나머지 8개 기관은 기관 차원의 통합된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록관 전용 뉴스레터는 확인되지 않았다. 호주 RBA는 'Unreserved'에 신규 항목이 등록될 때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하여, 9개 기관 중 유일하게 소장기록 갱신 소식을 능동적으로 전달하는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용자 의견 수렴·불만 처리(⑤)는 9개 기관 모두에서 이메일 안내 수준에 그쳤다. 의견 수렴 내역이나 개선사례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기관은 확인되지 않았다.

SNS·홍보·이벤트 운영(⑥)과 이용자 교

<표 7> 아웃리치 정보 제공 현황

분석 요소		BBk	Banxico	BdE	BoE	BOJ	BdF	MEF SIEN	BOK	RBA
아웃리치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⑥	-	-	-	-	-	-	-	-	-
	⑦	-	-	-	-	-	-	-	-	-
	⑧	-	-	-	-	-	○	-	-	-

○ 제공, △ 부분제공, - 미제공

육·견학·강좌 소개(㉓)는 분석 대상 기관 9개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전이나 행사 정보는 기관 SNS 등을 통해 안내되었을 수 있으나, 기록관 웹사이트에 별도로 축적되어 있지 않아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학술 연구회·세미나·워크숍 소개(㉔)는 프랑스 BdF에서만 확인되었다. 프랑스 BdF는 기록관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구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조사 기관 중 유일하게 학술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로 확인되었다.

4. 경제정책 기관의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문제점 및 우수사례 분석

70개 기관 중 웹사이트에서 기록관 운영이 확인된 기관은 13개였으며, 이 중 온라인 카탈로그 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기관은 9개에 그쳤다. 기록관 운영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57개 기관 가운데 관할 이관처(국가기록원 등)를 안내한 기관은 4개에 불과하여 다수의 기관이 실제로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웹사이트 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중앙은행은 법령상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 이러한 독립적 지위가 자체 기록관 운영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재무부와 금융감독기관은 대다수가 정부 통합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메뉴가 획일화되어 있고 행정 서비스 위주의 콘텐츠가 제공됨에 따라 조직 내 기록관리 업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기관의 기록관리 수행 기간의 길이와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의 제공 수준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100년 이상의 기록관리 역사를 가진 스페인 BdE, 프랑스 BdF, 프랑스 MEFSIEN, 영국 BoE 4개 기관의 평균 제공 항목 수는 13.25개로, 다른 5개 기관의 평균(12.4개)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온라인 서비스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가장 먼저 온라인 카탈로그를 개관한 독일 BBk가 조사 기관 중 가장 낮은 제공 수준(9개)을 보여 업무 수행 기간보다는 인력 및 예산 배정과 같은 기관 차원의 투자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기관 중에서는 호주 RBA가 네 영역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제공 수준(30개 요소 중 18개 제공 및 2개 부분제공)을 보여 가장 균형 잡힌 서비스 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밖의 기관들은 특정 영역에서 개별적인 강점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기록관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역할을 기준으로, 각 영역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는 기관별 우수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접근성과 알권리 요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기관 소개·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넘어서 서비스 규정·접근제한 안내·FAQ 등 구체적인 이용 절차에서는 기관 간 차이를 보였다. 저작권 등 법적 정보를 건별로 안내하는 기관은 9개 기관 중 호주 RBA가 유일했으며, 4개 기관은 접근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은 제공하지 않았다. 참고서비스 역시 대다수 기관이 이메일 주소 안내에 그쳤으며, 기록관 FAQ를 별도로 게시한 기관은 4개에 불과하였다. 이

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사례로 일본 BOJ의 아카이브 이용 규칙 및 열람 심사 기준 게시, 영국 BoE 및 프랑스 BdF·MEFSIEN의 비공개 기간 근거 법령 및 해설 제공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멕시코 Banxico는 연도별 기록관 업무 수행사례를 공개하여 다른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장기록의 구성과 생산 맥락 파악 지원 측면에서, 전체 소장기록의 범위나 생산자 정보와 같은 배경 정보의 제공 수준이 기관마다 상이하였으며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례는 없었다. 기록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9개 기관 중 2개에 그쳤으며 전체 기록물의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기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검색 가능한 범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어 이용자의 불필요한 탐색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사례로 멕시코 Banxico, 스페인 BdE, 프랑스 BdF, 호주 RBA가 전체 소장기록을 체계적으로 안내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영국 BoE는 조사 기관 중 유일하게 생산자 검색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하위부서 및 BoE와 관련된 개인이나 조직의 약력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기록의 생산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원문 제공 방식에서도 아쉬운 지점이 확인된다. 조사 대상 기관 모두 원문을 PDF 뷰어 형태로 제공하는 데 그쳐 문서 내 통계·수치 자료를 별도로 추출하거나 시각화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지적된 바 있다(심지민, 2023).

이용자의 효과적인 기록 탐색 및 접근 측면에서, 키워드·고급 검색 기능과 달리 주제별 연구가이드처럼 별도의 콘텐츠 기획과 지속적

인 관리가 필요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주제별 연구가이드를 제공하는 기관은 3개에 그쳤으며 목록 반출 기능 역시 단순 인쇄 수준부터 다양한 옵션을 지원하는 등 편차가 컸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프랑스 MEFSIEN과 호주 RBA의 경제사건·기관별·인물별 연구가이드 제공, 한국은행의 주제·시기·인물·유형별 브라우징, 프랑스 MEFSIEN의 고급 검색 옵션과 목록 반출 옵션 제공을 들 수 있다.

잠재적 이용자를 향한 소장기록 홍보 및 이용 동기 형성 측면에서, 조사 대상 기관의 아웃리치 제공 수준은 네 영역 중 가장 낮았다. 소장기록 갱신 소식을 이용자에게 능동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은 호주 RBA가 유일했으며, SNS·홍보·이벤트 운영과 이용자 교육·견학·강좌 소개는 9개 기관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활동 시에는 기관 SNS 등으로 충분히 안내되었을 수 있으나 기록관 웹사이트에 남지 않으면 추후 이용자가 이력을 다시 찾아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사례로 스페인 BdE의 과거 전시 이력 및 기록관 출판물 소개, 프랑스 BdF·MEFSIEN의 ‘이달의 문서’와 같은 정기 콘텐츠 연재를 들 수 있다. 특히 프랑스 BdF는 기록관에서 직접 역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연구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조사 기관 중 유일하게 학술 활동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경제정책 기관 기록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수준은 기록관리 수행 기간과는 무관하게 나타났으며, 생산 맥락 정보나 연구가이드, 아웃리치 콘텐츠와 같이 별도의 기획이 필요한 항목에서 편

차를 보였다. 경제정책 기관은 정책을 통해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언론 노출도 또한 높은 편이나 이러한 노출이 기관과 공중 간의 실질적인 친밀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의 강화는 이러한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제정책 기관 기록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경제정책 기관의 기록은 정책 결정의 배경과 근거를 담고 있어 정책이 미치는 범위만큼 폭넓은 이용자층의 접근 수요를 가짐에도 실제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었다. 이를 위해 FSB 25개 회원국의 중앙은행·재무부·금융감독기관 70개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기록관 운영 여부를 조사하고, 이 중 온라인 카탈로그 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기록관 안내, 소장기록 구성 및 이용, 기록 탐색 지원, 아웃리치 각 영역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가 기록의 소재와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국경을 넘어 파급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안내는 국내

외 이용자가 기록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소장기록의 구성과 생산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정책 기록은 특정 시기의 정책적·사회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책 결정의 주체와 배경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면 이용자가 기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기관을 처음 접하는 이용자도 탐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전문 연구자뿐 아니라 경제 정보 문해력 수준이 상이한 일반 공중도 이용하는 만큼 비전문가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기록관 고유의 콘텐츠와 학술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제 분야의 기록은 개별 기관의 역사를 넘어 국가의 사회·경제사를 보여주므로 이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과 공유하며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정책 기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점, 웹사이트 표면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만을 조사한 점, 이용자의 실제 정보 요구와 이용 경험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향후에는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요구와 이용 행태, 개별 기관의 아카이브 구축 과정을 다루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경제 분야 기록관리에 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경제정책 기관의 기록이 연구자 또는 일반 이용자 모두에게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주연, 남연화, 오효정 (2017). 웹 기반 연구기록정보서비스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NTIS vs. NKIS 비교를 통해.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139-160.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3.139>
- 기획재정부 (2024. 2. 29.).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재정경제부 누리집.
출처: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7851&menuNo=4010100
- 김영애 (2003). 독일 경제아카이브즈의 유형과 형성. 기록학연구, (8), 137-180.
<https://doi.org/10.20923/kjas.2003.8.137>
- 김유승, 설문원 (2013). 국회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25-48. <http://doi.org/10.4275/KSLIS.2013.47.4.025>
- 김준 (2018). 경제 위기상황의 기록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방기영, 이능금, 이유진, 한아람, 김용 (2015).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모델 개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25-48.
<http://doi.org/10.14404/JKSARM.2015.15.4.025>
- 서미라 (2005). 경제 분야 웹사이트 정보 품질 평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서채영, 이해영 (2024). 라키비움 웹 정보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 205-230.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205>
- 심지민 (202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서비스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연지현, 김성원 (20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경제정책기록서비스 연구: 경제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2), 117-133.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2.117>
- 이영숙 (2007). 공공기록물 정보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73-94.
<https://doi.org/10.14404/jksarm.2007.7.2.073>
- 이윤주 (2007).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평가 기준 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6), 147-200. <https://doi.org/10.20923/kjas.2007.16.147>
- 이종규 (2000). 경제위기: 원인과 발생과정 (금융경제총서 2000-2). 한국은행.
- 임진영, 이해영 (2020). 방송 영상자료의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107-128.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107>
- 장혜란, 이명희 (2008).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이용자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321-338. <http://doi.org/10.3743/KOSIM.2008.25.3.321>
- 장희정 (2012). 국가기록관 웹사이트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51-70.

-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051>
- 정미옥, 최상희 (2019).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패킷 기반 디렉토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4), 217-234.
<http://doi.org/10.14699/kbiblia.2019.30.4.217>
- 조윤희, 이성숙 (2025). 교육청 기록정보 웹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5(2), 135-165.
<http://doi.org/10.14404/JKSARM.2025.25.2.135>
- 조윤희 (2009). 은행아카이브즈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최상희 (2016). 가톨릭기록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4), 321-34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4.321>
- 최성연, 이혜은 (2021). NGO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2), 93-113.
<http://doi.org/10.14404/JKSARM.2021.21.2.093>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Abraham, T. (1996, August 21). Net worth: adding value to the archival websit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San Diego, CA, United States. Terry Abraham Web Archive. Available:
<https://www.lib.uidaho.edu/special-collections/t-abraham/networth.htm>
- Axios & Ipsos (2022, 4. 30.). Few Americans understand the Federal Reserve's role outside curbing inflation. Available:
<https://www.ipsos.com/en-us/news-polls/Axios-Federal-Reserve-2022>
- Baker, D. & Chin, R. (2016). E-availability and e-accessibility of financial documents: a cross-state examination of U.S. county websites. *Electronic Journal of e-Government*, 14(1), 73-86.
- Bottone, M., Tagliabracci, A., & Zevi, G. (2021). What do Italian households know about the ECB's target? *Economics Letters*, 207, 110023.
<https://doi.org/10.1016/j.econlet.2021.110023>
- Dorey, J. (2018). Archival Interaction: A Framework to Assess University Archives Website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Undergraduat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Canada.
- Duff, W. M., Yakel, E., & Tibbo, H. (2013). Archival reference knowledge. *The American Archivist*, 76(1), 68-94. <https://doi.org/10.17723/aarc.76.1.x9792xp27140285g>
- Mellina, S. & Schmidt, T. (2018). The Role of Central Bank Knowledge and Trust for the Public's Inflation Expectations (Discussion Paper No. 32/2018). Deutsche Bundesbank.
- O'Donnell, F. (2000). Reference service in an academic archives. *The Journal of Academic*

- Librarianship, 26(2), 110-118. [https://doi.org/10.1016/s0099-1333\(99\)00147-0](https://doi.org/10.1016/s0099-1333(99)00147-0)
- Pitol, S. P. (2019). Evaluating how well an archival website allows a researcher to prepare for an on-site visit. *The American Archivist*, 82(1), 137-154. <https://doi.org/10.17723/0360-9081-82.1.137>
- Pugh, M. J. (1992).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St-Amant, P., Tkacz, G., Guérard-Langlois, A., & Morel, L. (2005). Quantity, Quality, and Relevance: Central Bank Research, 1990-2003 (Working Paper No. 2005-37). Bank of Canada.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ng, Ki-Yeong, Lee, Neung-Geum, Lee, Yu-Jin, Han, Ah-Rang, & Kim, Yong (2015). A study on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web-archival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5(4), 25-48. <http://doi.org/10.14404/JKSARM.2015.15.4.025>
- Chang, Hye-Rhan & Lee, Myoung-Hee (2008). Developing a public services framework for the regional archiv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3), 321-338. <http://doi.org/10.3743/KOSIM.2008.25.3.321>
- Cho, Yoon-Hee (2009). *A Study on Establishment of Bank Archives: Focused on Bank Archives Management in United Kingdom*. Master's thesis,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Cho, Yunhwa & Lee, Sungsook (202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rchival information web services of offices of education.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25(2), 135-165. <http://doi.org/10.14404/JKSARM.2025.25.2.135>
- Choi, Sanghee (2016). A study on online services of catholic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4), 321-34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4.321>
- Choi, Seongyeon & Lee, Hye-Eun (2021). A study on the online information services of NGO archives.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21(2), 93-113. <http://doi.org/10.14404/JKSARM.2021.21.2.093>
- Gang, Ju-Yeon, Nam, Yeon-Hwa, & Oh, Hyo-Jung (2017). An evaluation of web-based research records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recommendations for their improvement: NTIS

- vs. NKIS,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7(3), 139-160.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3.139>
- Im, Jin-young & Rieh, Hae-young (2020). A study on the online information services of broadcasting video data: focusing on public broadcasting.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20(4), 107-128.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107>
- Jang, Hee-Jung (2012). A study on evaluation of national archives websites.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2(2), 51-70.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051>
- Jung, Mi-Ok & Choi, Sanghee (2019). Improving the access service of national designated record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focusing on facet director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4), 217-234.
<http://doi.org/10.14699/kbiblia.2019.30.4.217>
- Kim, Joon (2018). A Comparative Study About the Economic Crisis Archiving Between South Korea and U.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Kim, Young-Ae (2003). The formation and types of business archives in German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8), 137-180. <https://doi.org/10.20923/kjas.2003.8.137>
- Kim, You-seung & Seol, Moon-won (2013). A study on online services of the national assembly's archival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4), 25-48. <https://doi.org/10.4275/KSLIS.2013.47.4.025>
- Korea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Records and Archival Terminology. Seoul: Yeoksa Bipyeongsa.
- Lee, Jong-kyu (2000). Financial Crisis: Causes and Process of Occurrence (Financial and Economic Series 2000-2). Bank of Korea.
- Lee, Yoon-Ju (2007). A study on the evaluating standards on-line service for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6), 147-200.
<https://doi.org/10.20923/kjas.2007.16.147>
- Lee, Young-Sook (2007). A study on development directions for public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7(2), 73-94.
<https://doi.org/10.14404/jksarm.2007.7.2.073>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4. 2. 29.). Results of the 2023 national economic literacy survey.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Website. Available: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7851&menuNo=4010100

- Seo, Chae-young & Rieh, Hae-young (2024).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evaluation for larchiveum's web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24(1), 205-230.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205>
- Seo, Mi-Ra (2005). The Evaluation on Information Quality for the Website of Economic Fiel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 Shim, Jee-min (2023). A Study on the Service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Focusing on the Case of Bank of Korea.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Yeon, Jihyun & Kim, Sungwon (2022). A study on the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of economic policy using text mining methods: focusing on economic policy direc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2(2), 117-133.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2.117>

[부록 1] 조사 대상 기관

연번	국가	기관 정보				
		유형	기관명		기록관 운영	기록관 웹사이트 운영
1	남아프리카 공화국	은행	SARB	South African Reserve Bank	-	-
2		재무	NT	National Treasury	-	-
3		감독	FSCA	Financial Sector Conduct Authority	-	-
4	네덜란드	은행	DNB	De Nederlandsche Bank	-	-
5		재무	NL-FIN	Ministerie van Financiën	-	-
6		감독	AFM	Autoriteit Financiële Markten	-	-
7	독일	은행	BBk	Deutsche Bundesbank	○	○
8		재무	BMF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	-
9		감독	BaFin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	-
10	러시아	은행	CBR	Central Bank of Russia	-	-
11		재무	Minfin	Ministry of Finance	-	-
12	멕시코	은행	Banxico	Banco de México	○	○
13		재무	SHCP	Sec.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	-
14		감독	CNBV	Comisión Nacional Bancaria y de Valores	-	-
15	미국	은행	Fed	Federal Reserve System	-	-
16		재무	US-Treasury	Department of the Treasury	-	-
17		감독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
18	브라질	은행	BCB	Banco Central do Brasil	-	-
19		재무	MF	Ministério da Fazenda	-	-
20		감독	CVM	Comissão de Valores Mobiliários	-	-
21	사우디 아라비아	은행	SAMA	Saudi Central Bank	-	-
22		재무	SA-MOF	Ministry of Finance	-	-
23		감독	CMA	Capital Market Authority	-	-
24	스위스	은행	SNB	Schweizerische Nationalbank	○	-
25		재무	EFD	Eidg. Finanzdepartement	-	-
26		감독	FINMA	Eidg. Finanzmarktaufsicht	-	-
27	스페인	은행	BdE	Banco de España	○	○
28		재무	MINECO	Min. de Economía, Comercio y Empresa	-	-
29		감독	CNMV	Comisión Nacional del Mercado de Valores	-	-
30	싱가포르	은행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
31		재무	SG-MOF	Ministry of Finance	-	-
32	아르헨티나	은행	BCRA	Banco Central de la R. Argentina	-	-
33		재무	MECON	Ministerio de Economía	-	-
34		감독	CNV	Comisión Nacional de Valores	-	-
35	영국	은행	BoE	Bank of England	○	○
36		재무	HMT	HM Treasury	-	-
37		감독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

연번	국가	기관 정보				
		유형	기관명		기록관 운영	기록관 웹사이트 운영
38	유럽연합	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	○	-
39		재무	EC	European Commission	-	-
40		감독	ECB-BS	ECB Banking Supervision	-	-
41	이탈리아	은행	BdI	Banca d'Italia	○	-
42		재무	MEF	Min.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	-
43		감독	CONSOB	Commissione Nazionale per le Società e la Borsa	-	-
44	인도	은행	RBI	Reserve Bank of India	접속불가	
45		재무	IN-MoF	Ministry of Finance	접속불가	
46		감독	SEBI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접속불가	
47	인도네시아	은행	BI	Bank Indonesia	-	-
48		재무	Kemenkeu	Kementerian Keuangan	-	-
49		감독	OJK	Otoritas Jasa Keuangan	-	-
50	일본	은행	BOJ	Bank of Japan	○	○
51		재무	JP-MOF	Ministry of Finance	-	-
52		감독	FSA	Financial Services Agency	-	-
53	중국	은행	PBC	People's Bank of China	-	-
54		재무	CN-MOF	Ministry of Finance	-	-
55		감독	NFRA	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Administration	-	-
56	캐나다	은행	BoC	Bank of Canada	○	-
57		재무	FIN	Department of Finance	-	-
58		감독	OSFI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	-
59	튀르키예	은행	TCMB	T. Cumhuriyet Merkez Bankası	-	-
60		재무	HMB	Hazine ve Maliye Bakanlığı	-	-
61		감독	BDDK	Bankacılık Düzenleme ve Denetleme Kurumu	-	-
62	프랑스	은행	BdF	Banque de France	○	○
63		재무	MEFSIEN	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énergétique et numérique	○	○
64		감독	AMF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	-
65	한국	은행	BOK	한국은행	○	○
66		재무	MOFE	재정경제부	-	-
67		감독	FSC	금융위원회	-	-
68	호주	은행	RBA	Reserve Bank of Australia	○	○
69		재무	AU-Treasury	Department of the Treasury	-	-
70		감독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	-
71	홍콩	은행	HKMA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	-
72		재무	FSTB	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Bureau	-	-
73		감독	SFC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	-

* 국가명 가나다순, 기관명 약칭이 동일한 경우 국가코드(ISO 3166-1의 alpha-2)와 함께 표기

[부록 2] 정보 조사 내용

분석 요소		형태	조사 내용
기록 관 안 내	① 기관 및 기록관 소개	정보	기관의 설립 배경·연혁·조직·업무 범위 등 기관 전반에 관한 정보와 기록관의 역할·운영 현황 등을 별도로 소개하는지 확인
	② 연락처·운영시간·위치	정보	기관의 연락처·운영시간·위치 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
	③ 서비스 규정·이용절차	정보	열람실 운영 여부, 기록물 열람 방법,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시 준수해야 할 규정 등 기록물 이용 전반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는지 확인
	④ 저작권 등 법적 정보 안내	정보	기록물 이용 시 적용되는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기준을 안내하는지 확인
	⑤ 기록 접근제한 안내	정보	목록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목록은 공개되어 있으나 원문은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접근이 제한된 기록의 범위와 사유를 명시하는지를 확인
	⑥ 복사·복제·대출 안내	정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없는 기록의 사본 발송 요청, 또는 타 기관에서의 전시·활용을 위한 기록 이용 신청 등 기록물의 물리적 제공 방식과 그 절차를 안내하는지를 확인
	⑦ 참고서비스 안내	정보	기록 탐색·활용 과정에서 아키비스트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⑧ 자주 묻는 질문(FAQ)	정보	기록 이용 관련한 반복 질문을 사전에 정리하여 제공하는지 확인
소 장 기 록 구 성 및 이 용	① 소장기록의 범위와 내용	정보	전체 소장기록을 фонд(fonds)·시리즈(series) 등의 집합 단위로 출처·범위·구조를 기술하여 한 번에 맥락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
	② 기록 생산자 정보	정보	기록을 생산한 부서·개인·위원회 등 부서명의 변천, 업무범위의 변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는지 확인
	③ 기록 상세기술 정보	정보	개별 기록물 단위에서 제목·일자·생산자·범위 등의 메타데이터가 구조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
	④ 온라인 원문 열람·다운로드·인쇄	기능	기록물 원문을 웹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
	⑤ 사본 제공 신청	기능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없는 기록의 사본 발송 요청 또는 이용 신청을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지 확인
	⑥ 참고정보원·유관기관 링크	정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소장기록과 관련 있는 외부 정보원이나 유관기관으로의 연결을 제공하는지 확인
	⑦ 게시내용 업데이트 정보	정보	게시 정보의 최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갱신 일자를 명시하는지 확인
기 록 탐 색 지 원	① 웹사이트 이용 가이드	정보	검색 방법, 메뉴 구성, 이용 절차 등 웹사이트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지 확인
	② 주제별 연구 가이드	정보	특정 주제나 업무별로 관련 기록의 분량·생산 배경·활용 방법을 안내하는지 확인
	③ 목록 탐색 (Browse)	기능	검색어 입력 없이 주제·시기·생산부서·기록 유형 등을 기준으로 정렬·필터링하여 기록물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단순히 제목만 나열된 경우 제외)
	④ 키워드 검색	기능	제목·생산자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단어를 입력하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
	⑤ 고급 검색	기능	생산일자·기록 유형·생산자 등 복수의 조건을 조합하거나 불리언 연산자를 활용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
	⑥ 목록 반출, 선택정보 저장·내보내기	기능	검색 결과 중 이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파일로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
	⑦ 챗봇·AI 서비스	기능	이용자의 질의에 상시 대응하거나 유사 기록물을 추천하는 등 최신 기술 기반의 탐색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

분석 요소		형태	조사 내용
아 우 터 치	① 실물 전시 소개	정보	기록관에서 실물 전시를 운영하는 경우 그 일정·장소·내용 등을 웹사이트에서 소개하는지 확인
	② 소장기록을 활용한 큐레이션 콘텐츠	정보	특정 주제나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기록을 선별·구성하여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가 있는지 확인
	③ 출판·편찬·구술기록	정보	소장기록을 2차적으로 가공·편찬한 결과물(사료해제집·도록·기관사·정책변천사 등)이나 관계자 구술채록 결과를 제공하는지 확인
	④ 뉴스레터	기능	기록관의 새로운 소식·행사 안내 등을 정기구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
	⑤ 이용자 의견 수렴·불만 처리	정보	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불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안내하는지 확인(온라인 제출 양식·민원시스템 등 방식은 무관하며 단순 연락처 안내도 포함)
	⑥ SNS·홍보·이벤트 운영	정보	소셜미디어 채널 링크를 제공하거나, 행사·이벤트 등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는지 확인
	⑦ 이용자 교육·견학·강좌 소개	정보	교육 프로그램·견학·강좌 등의 일정과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소개하는지 확인
	⑧ 학술 연구회·세미나·워크숍 소개	정보	연구자·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세미나·워크숍 등의 일정과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소개하는지 확인

